박지원 대세론 vs 非朴연대 오늘 결판

민주통합 원내대표 경선…결선 투표 여부 주목

당내 역학·대선 구도 관심 속 초선 움직임 변수

"박지원 후보의 대세론 승리냐, 비박연대(비 박지원 연대)의 역전승이냐."

4일 펼쳐지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해찬(당권)-박지원(원내대표)' 역할 분담 합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 구도가 선거일 하루 전까지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당내 역학구도와 대선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방전 가열**=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3일 민주통합당 내외에서는 한 표라도 더 모으려는 후보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각 후보들은 당내 각 계파의 지원을 얻기 위해 물 밑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물론 초선 및 중립 성향 의원들에 대한 구애의 발길을 이어갔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는 '단합'이냐 '담합'이냐를 놓고 후보자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박지원 후보는 이해찬 당선자와의 역할 분담 합의에 대해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의 구도를 불식시키고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촉박해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통합진보당 문제로 야권에 위기가 오고 있다며 리더십을 발휘, 야권이 연합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인태, 이낙연, 전병헌 의원 등 비박 후보들은 박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유 후보는 "원내대표도 아무리 잘해도 한번 하면 다시 나오는 법이 없다"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대대표를 지냈던 박 후보를 비판했다.

전병헌 후보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이 과거로 퇴행할 것이냐. 새로운 변화와 쇄신으로 나가냐를 결정하는 선택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도 "담합을 친노(친노무현)와 호남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호남을 파는 처사"라고 박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경선 판세는**=일단 박지원 후보 측은 70표 이상이 공고하다는 입장이다. 확인에 확인을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비박 연대 후보들은 박지원 후보의 지지표가 50표 내외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노 그룹의 분화와 대선 주자들의 견제, 초선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70표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결선투표에서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56명 가운데 21명이 이해찬 고문과 박지원 최고위원의 '역할분담론'에 대해 공식적인 비판 입장을 밝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가치와 노선이 아닌 구도짜기와 그에 기초한 원내대표 및 당 대표 선출이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스럽다"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전체 초선 의원들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데다 형식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반면, 비박 후보 진영에서는 이날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는 민주당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며 4일 경선에서 이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진보당 이정희 유시민 공동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내년 3조 반영 노력

목포 방문 정몽준 대선 예비후보…의대유치 대선 공약 검토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광주에 이어 3일 목포시를 방문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목포시청을 찾아 정종득 시장과 20여 분간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호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전남지역 의과대학 유치 등 국고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목포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자신도 목포 명예시민이라고 소개한 뒤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내년도 계속 공사비 3조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전대표 일행은 시청 방문에 이어 대불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한 뒤 여수로 떠났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3일 목포시청을 방문한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시청 현관에 설치된 목포시 조감도를 보며 정종득 시장으로부터 시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박근혜 全大직후 본격 대권행보

내주 여수 방문 민생투어 마무리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5·15 전당대회 이후 구상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11총선을 이끌었던 그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당권의 바통을 넘기고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일정표는 여전히 총선체제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역민의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실천을 거듭 약속하는 시·도 순회방문에 나섰던 그는 3일에도 인천·경기의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다음주 여수엑스포 개막에 맞춰 호남권 방문을 끝내면 2주간의 민생투어가 마무리된다. 그의 주변에서는 5·15전대로 당이 정상화되는 대로 박 비대위원장이 5월 말께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선이 8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경선캠프 출범을 위한 실무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위원장과 다른 경선주자들과의 경쟁도 주목을 끈다. 경선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이어 이재오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까지 잠룡군에 합류하면서 다자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최근 정쟁이 가열되는 것을 경고했던 박 위원장이 앞으로 선거판이 커지고 경선전이 첨예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선캠프도 내실을 구하되 소규모로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진보 '비례 부정' 파문 확산

당권·비당권파 진상조사 결과 놓고 날선 공방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우선 당내 계파 갈등이 악화하는 양상이며 외부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들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대표단회의를 하며 얼굴을 마주했지만 인식 차만 보였다.

당권파인 민주노동당 출신의 이정희 공동대표와 비당권파인 국민참여당 출신의 유시민 공동대표,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출신의 심상정 공동대표는 서로 눈길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진상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어떤 경선 후보자에게, 어떤 부정의 경과가 담긴 표가 주어졌는지 백지상태다.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때부터 조준호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기로 했고, 조사위는 지극히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습 방안을 놓고도 입장차가 현저히 드러났다. 모두 한 목소리로 사과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책임 방식을 놓고도 계파별 입장이 갈렸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파가 이 대표를 사퇴시키는 대신 민노당 출신의 비례대표 1번, 2번, 3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가운데 2·3번은 당권파 인사다.

그러나 비당권파는 선거의 정당성이 무너진 만큼 경선을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전원 사퇴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경우 영입 인사인 4번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5번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총장, 6번 박원석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비례대표를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12번 유시민 대표, 14번 서기호 전 판사, 18번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당선권에 들어온다.

한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은 이날 회의 직후 "당의 수사의뢰가 없음에도 검찰이 보수 유령단체의 고발이란 명분을 통해 우리 당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수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우여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이정현 의원 "완전국민경선제 요구는 요행 바라는 것"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5·15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본격적으로 임하겠다. 대표 최고위원 자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선당후사,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임해야만 그 직을 완수할 수 있다"면서 당 화합,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 국민행복 실현 등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아직 실행해 보지 않은 것인데다 역선택 위험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이번에 80만명 규모의 모바일 투표를 한 정당도 있는데, 여러 위험이 내포돼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내 비박계 후보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제 요구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며 "총선을 해도 투표율이 50%가 안 넘는데 일반 국민들이 (대선후보 경선에) 얼마나 가겠나. 역선택이 반드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직판1등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국제선 항공권 판매개시 >> 무안 – 북경 티켓 조인 240,000원~ / 무안 – 상해 티켓 조인 180,000원~ (Tax별도)
무안공항출발
무안-북경 4일(화요일출발)/5일(금요일출발)
북경 4일 369,000원~
북경 5일 399,000원~
공통포함 최소출발8명,차별화된5성급호텔
공통사항 3대옵션(만리장성케이블카,서커스,발맛사지) 3대특식(오리구이,샤브샤브,불고기)
불포함 사항 유류세120,800원(4월기준),단체비자18,000원,기사가이드팁-1일당$10
무안-상해 4일(매주월,수요일출발)/5일(매주목,토요일출발)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원~
상해,항주,황산 5일 579,000원~
상해,황산,삼청산 5일 619,000원~
상해,주가각,장가계 5일 949,000원~
공통포함 최소출발8명,차별화된4성급호텔
불포함 사항 유류세120,800원(4월기준), 단체비자18,000원, 기사가이드팁-1일당$10
특가상품
백두산 알찬여행
서파 대련 5일 449,000원~
[훼리상품] 서파or북파 5일/6일 299,000원~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비자, 기사/가이드팁
[가정의달 홈쇼핑특집] 온천+특식+올렌길산책 북큐슈 4일 229,000원~
특전 : 고정환율적용, 아소비라파크 온천 수영장 입장권 무료증정, 선상2박+온천호텔1박, 웰빙새벽올렛길, 식물원산책
항공상품 제주도 3일
(매주금)좌석확보 금요일(08:20)~일요일(19:20)
에어텔(항공+호텔) 329,000원~
에어카텔(항공+렌트+호텔) 369,000원~
불포함사항 : 유류세(26,400원)
선박상품 제주도 3일
129,000원~
포함사항 : 선박료, 숙박비, 식사비, 일정내관광요금
불포함사항 : 석식2회, 여행자보험(2,000원), 가이드팁(10,000원)
중국
[5대옵션포함/5성급호텔]
황산/상해/항주+취온천 5일
489,000부터
▶4/27,28,29,30 5/1,2,3,4,5,6,7,8,9,10~
온곡케이블카,송성가무쇼,상해서커스,황포강유람,발마사지,특식
동화의 세계 구채구/성도 4일/5일/6일
499,000부터 버스이동
▶5/8,12,15,19,22,26,29,30,31 6/2,3,4,5,6,8,9~
항공이동 중경/(서안/성도) 구채구 699,000부터
천하절경 계림/(하문) 5일/6일
649,000부터 4명이상 출발확정
▶5/3,6,13,20,24,27,30 6/3,7,9,10,13,14,16,17~
이강유람,관암동굴(모노레일),요산(케이블카),우룡하뗏목
장가계/원가계/천문산 5일/6일 399,000부터
곤명/석림/구향동굴(백련스파♨) 5일/6일 599,000부터
서안/병마용/진시황릉/화청지 4일/5일 399,000부터
대만/화련/지우펀+야류/101빌딩 4일 349,000부터
미주
[캐나다가 나를 불렀다]
캐나다 항공 완전일주 8일
239만원 ⇨ 209만원 ▶5/15,17,22,24,29,31 6/5,7,12,14,19,21,28 7/3,5,10~
4대특전+4대특식포함, 비아레일 탑승, 나이아가라폭포뷰 숙박, 토론토 준특급호텔, 밴쿠버/토론토 연장가능
천섬포함 시카고 미동부 캐나다 11일
259만원부터 ▶5/9,16,23,30 6/6,13,20,27 7/4,11,18~
▷윌리스전망대, 추신수클리브랜드경기장, 우드버리아울렛, 안개속의 숙녀호
홈쇼핑 Hit 자유투어단독
라스베가스특급호텔, 바스토우아울렛, 인솔자동행, 특식4회, 마일리지적립가능, 미국연장가능
하와이+미서부 일주 11일
179만원부터 5/8마감임박
▶5/15,25 6/1,8,12,19,26 7/3,10,16,22,24~
일본
[NS홈쇼핑 HIT] 후쿠오카 야마구치 특급료칸온천 4일
229,000부터 ▶5/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7~
고정환율, 전통카이세키 특식, 유카타문화체험, 노천온천욕, 기부키광연,특급료칸온천호텔숙박,노옵션전일관광,부산출발
동남아
아시아나 방콕 파타야+알카자쇼 5일
[실속] 269,000부터 5/4
▶알카자쇼, 농눅빌리지, 5대특식, 타이거쥬
[특급] 349,000부터 [매일출발]
▶특급호텔,코끼리트래킹,파타야나이트씨티투어,알카자쇼
다낭/호이안/후에 5일/6일
399,000부터 [월,수,목,금,토,일]
노쇼핑, 국적기직항, 3대특식, 베트남 전통모는 증정
세부+발마사지 4일/5일
299,000부터 [5/2,3,10,16,17]
라프라프디스커버리투어, 발마사지 1회, 특식2회(레드코코, 리조트식)
[3國3色] 싱가폴+바탐+조호바루 5일
599,000부터 ▶5/3,10,11,12,13,14,15~
특식2회, 테마공원센토사섬, 주동새공원, 바탐섬휴양
베트남/캄보디아(앙코르왓) 6일
[실속] 399,000부터 5/10,12,16,20,22
[품격] 449,000부터 단5회특가
푸켓/피피섬+팡아만 OZ특가
299,000부터 [5/5,6 단2회 특가]
국적기 OZ이용,4대특식,4대특전포함,면세점 1만원선불카드
발리+그린워터파크 5일
499,000부터 ▶ 5/1,2,3,4,5,6,7,8~
호텔디너1회,발마사지1시간,킨따마니 커피시음,우붓재래시장
유럽
홈쇼핑대박히트 쉔부엘(하이디)+3대박물관
서유럽+이태리 6국 12일
169만원부터 스위스 케이블카, 베르사유, 베니스 전일확정
▶5/17(확),21(확),31(확) 6/7,14(확),21(확),28(확)~
[BEST / 송출1위]
할슈타트와 캄파섬 동유럽 6국 9일
139만원부터 5/14 단1회
엘크, 다뉴브강크루즈, 프라하야경트램(발칸 2국)
▶5/1(확),2(확),7,9(확),12,14,15(확),16,19,21,23(확)~
3대피요르드+직항
러시아 북유럽(핀/노/스/덴) 12일
289만원부터 1급호텔, DFDS, 실자라인, 크레믈린궁전,성부, 코펜하겐숙박
▶5/5,7,12,19,21,26,28,31 6/2,3,10,17,24 7/1,5,8,12,15~
[노팁] 서유럽 4국(영/프/스/이) 8일/9일/10일 ▶5/9,11,15,16,18,23~ 1,590,000원~
[노팁] 서유럽 6국/7국 12일 ▶5/8,10,15,17,18,22,24,26~ 2,090,000원~
"항공이동" 스페인/포르투갈 10일 ▶5/7,9,11,14,16,18,21,23~ 2,290,000원~
[직항] 피요르드 북유럽 3/4국(핀/노/스/덴) 8일/9일 ▶5/3,24,28,31 6/7,14,21~ 2,190,000원~
호주 뉴질랜드
홈쇼핑 HIT
시드니 완전일주 6일
1,090,000부터 선착순 6명특가
▶5/3,8,10,13,17,20,22,24,25,27~
▷5대특식,블루마운틴,포트스테판,올림공,동부해안,시내관광
괌 PIC 골드 4일/5일 [성인2+소아2]
679,000부터 전일정식사, 디너쇼, 시내관광
▶5/3,4,5,6,7~27,28,29,30 6/1,2,3,4~[매일출발]
[사이판] 599,000원~ 전식, 마나가하, 시내관광
[팔라우] 709,000원~ 화룡석, 블루홀, 시내관광
[티니안] 749,000원~ 화룡석, 정글투어, 스노쿨링
연계일정 NO.1
[특급일정] 국적기직항/9대특식/특급호텔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1,790,000원~ ▶5/1,2,3,4,5,6,7,8,9,10,11,12,13,14,15,16,17,18,19~
포트스테판, 블루마운틴, 타우포관광, 스카이라인 곤돌라, 시드니타워, 모노레일, 디너크루즈, 조식크루즈
[JaU+] 항공이동/노팁/유류할증료 포함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3,090,000원~ ▶5/1,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16명이상시 인솔자동행, 오페라하우스내부관람, 승마체험, 2대곤돌라, 11대특식, 3대크루즈, 노팁
예/약/상/담
북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시청점 382-3300
동구점 227-8255
하남점 954-9700
목포점 061-284-1000
광양점 061-794-8804
전주점 063-284-6868
서울시 중구다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6층 ●서울시 중구청 등록 일반여행업 제39호 ●O표요금변동있음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가입(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1억원 여행자보험 ●1급이상호텔(일부상품제외) ●최소출발인원(10명이상/인솔자동행 :일부상품제외) ●전일정식사제공(기내식포함) ●교통편 : 항공/버스/기차/선박 ●여행불편처리센타 1588-8692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변동 있음 ※여행일정변경 시 사전에 여행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가격포함 내역]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포함/유류할증료 불포함 (단, 자유여행상품은 미적용되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금액 변동가능)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 : 상품 및 출발일에 따라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이 있을 수 있으며, 각국 비자비용 및 고객의 선택에 의한 안내원 봉사료는 선택경비 사항이며 기사/가이드팁은 권장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